

# 2020

' 庚子年 - 하얀 쥐의 해 '



몸집은 작지만  
생명의 무게는 같습니다.

# 함께 나누는 사랑

겨울호  
2020. 02  
NO.45  
동물보호지



Special  
우연히 마주친 동물학대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 읽기  
인간과 동물 사이의  
필요 거리

생명에세이  
동물과 인간과  
땅의 선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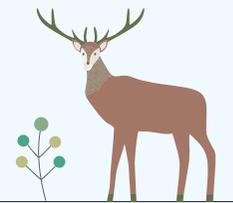
# 여러분의 후원으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ww.animals.or.kr](http://www.animals.or.kr)

## CONTENTS

- 04** 입양해주세요  
낯선 마을에 버려진 '나무'가 가족을 찾습니다
- 06** 묘생역전  
개비와 복동이의 '묘(猫)형묘제' 스토리
- 08** 세상 읽기  
인간과 동물 사이의 필요 거리
- 10** Special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개발
- 16** Special Interview  
"동물학대를 명확하게 판단할  
법수의학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용동물병원〉 원장 김용현
- 18** 글로벌 뉴스  
'징역 10년 vs 무형의'  
동물학대 처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 20**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동물을 위한 벨라 판타지아
- 22** 현장에서  
동물학대 사건을 마주하며  
-4개월 차 풋내기 활동가의 학대대응 이야기
- 24** 함께 나눔  
'미지'가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 26** 생명에세이  
동물과 인간과 땅의 선순환  
- 생명역동농업 〈평화나무농장〉
- 30** 공존&공감  
우리가 마땅히 읽고 보고 들어야 할 동물 관련 문화 이야기
- 32** 활동 소식
- 34** 반려동물복지센터 온 포토뉴스  
동물 친구들의 기억을 담고 있는 별나무
- 35** 캠페인 광고



###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법인)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후원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월 뉴스레터, 계절마다 동물보호 계간지를 보내드립니다.

###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 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의 동물복지 캠페인 활동, 동물 보육원 건립, 동물보호법 및 관련 제도의 강화 요구 등에 사용됩니다.

###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animals.or.kr 로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매달 정기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기후원으로 조성된 후원금은 동물자유연대의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함께 나누는 삶 계간지 / 2020. 겨울호

발행처 (사)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20년 02월 19일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기획 동물자유연대 책임 진행 홍현진

제작 Mayday Graphic Studio 정유희  
편집 신영배, 박주호 디자인 신제현 교정 박상미 인쇄 순환광고인쇄

\* 동물자유연대 매거진 <함께 나누는 삶>은 환경과 동물을 위해 재생 종이 및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www.animals.or.kr](http://www.animals.or.kr)

입양해주세요



## 낮선 마을에 버려진 '나무'가 가족을 찾습니다

글 이민주 활동가

2015년 5월, 동물자유연대는 심각한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아지 남매 2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강아지들은 외부인이 마을에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마냥 활발하게 뛰어놀 시기였던 3개월가량의 강아지들은 심한 피부병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가려운 몸을 계속 긁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구조 이후 2마리의 강아지에게 '나무'와 '향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반려동물복지센터에 입소한 나무와 향기는 꾸준한 약물 목욕과 집중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조 당시 어린 강아지였던 나무와 향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무와 향기는 정말 성격이 좋은데도 중형견이라는 이유로 입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향기는 해외입양을 통해 새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나무는 아직도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는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어두운 기색이라곤 없습니다. 사람만 보면 환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사랑을 바라곤 합니다. 나무는 무척 활발하기 때문에 넘치는 에너지를 받아주실 분이 가족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족이 나타난다면 사랑을 사랑하는 나무에게 더없이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가족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나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나무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혼혈견 / 4살(2015년생) / 남 / 8kg가량 / 건강함  
/ 사람을 잘 따르고 활발함



# 개비와 복동이의 '묘(猫)형묘제' 스토리

정리 <함께 나누는 삶> 편집부  
사진 김여정 님



'개비'는 예쁜 코점이 엄마의 여섯 아기 중 한 천사냥이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남양주 반려동물 복지센터에서 새 가족을 기다리던 개비는, 2015년에 역시 동물자유연대를 통해 '복동이(입양 전 이름: 야옹이)'를 입양한 김여정 님의 집에서 '묘생 꽃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개비의 입양 당일, 김여정 님은 새롭고 낯선 환경에 개비가 혹여나 밥도 잘 안 먹고 화장실도 잘 안 갈까 봐

걱정이 컸다는데요, 그런 걱정도 잠시. 이동장의 문이 열리자마자 개비는 복동이 형아의 털로 만든 털공을 여기저기 물고 다니며 활발하게 뛰어놀기 바빴다고 합니다. 여정 님께선 개비가 집에 오기 며칠 전, 개비를 위해 새로 마련한 침대와 복동이가 아기 때 사용하던 스크래처로 개비의 방을 꾸며줬는데, 며칠간 복동이는 그 침대가 자신의 새로운 침대인 줄 알고 행복하게 사용했다는 '웃픈' 이야기도 동물자유연대로 함께 보내왔습니다.

첫날부터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밥보다 복동이 형아의 밥과 물을 '참참' 잘도 먹은 개비. 스파이더맨 버금가는 오르기 신공(?)을 보유한 개비에게 복동이의 격리망은 무용지물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틀 날부터 개비와 복동이의 합사가 진행되었는데, (첫날 개비를 향해 하악질을 하던) 복동이 또한 의젓하고 능률한 형답게 개비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후문. 며칠간 탐색의 시간(?)을 보내고 형제가 된 개비와 복동이. 개비는 복동이 형아가 가는 곳마다 작은 네 발로 총총 따라다니며 형을 관찰하고 꼬리를 물며 장난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 개비가 귀찮기도 할 텐데, 복동이는 개비에게 슬그머니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는 개비에게 그루밍도 해주답니다. 여정 님께서는 이 평화로운 합사를 가능하게 해준 복동이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다고 하네요.

자신의 밥보다 복동이 형아의 밥을 더 많이 먹어 이제는 제법 포동포동해졌다는 개비. 그런 개비의 든든한 아빠이자 형이자 친구 노릇을 하는 복동이. 각티슈에 들어 있는 휴지를 모두 뽑아서 뜯어놓는 개비의 요상한 취미(?) 덕분에 집 안의 모든 각티슈를 얹어서 쓰고 있다는 여정 님까지. 이 세 가족의 '확다글락다글 가족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면 사랑스러운 개비와 복동이의 묘생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인간과 동물 사이의 필요 거리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사육되는 돼지뿐만 아니라 야생멧돼지까지 몰살하듯 죽이는 사태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최초 발생국인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예방약이나 치료제가 없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중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박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 허베이성 우한의 재래시장에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 사이에서 폐렴 환자가 다수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박쥐를 먹으면 복을 먹는다고 믿거나 박쥐고기를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박쥐의 강한 면역력이 그런 맹신을 가지게 하는 것 같다. 콜린 웹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박쥐는 137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그중 61종이 인수공통감염 바이러스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박쥐는 바이러스에 취약하지 않다.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아도 생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렇듯 면역력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박쥐를 먹으면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박쥐는 바이러스의 1차 숙주로, 그 바이러스가 뱀 등의 다른 동물을 거쳐 인간에게 전해진다. 금번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2002년 중국 남부지방 광둥에서 발생하여 확산된 사스(SARS)의 숙주로도 박쥐가 지목되었고, 2015년 국내를 초긴장시켰던 메르스(MERS)도 박쥐에서 유래되어 낙타를 거쳐 인간으로 옮겨 왔다.

그러면 박쥐를 다 몰살시키면 이런 위험성도 제거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박멸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연 속의 모든 존재는 생태 그대로 있는 것만으로도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인간 역시 동물과 함께 공생하며 자연 속의 한 존재로 살아갈 때에 생태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이 온전해진다.

문제는 인간이 동물과의 생태거리를 파괴하면서부터 발생한다. 야생을 야생으로 두지 않고 인위적인 접촉으로 거리를 좁혀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과 동물은 서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전이시킬 수 있다. 인간만 동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도 동물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둘 때에 위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어린이의 야생동물 만지기 체험이라든가, 해외 오지체험 프로그램 방송에서 야생동물을 잡아 족석에서 구워 먹는 장면이나, 최근 <아내의 맛>에서 수조 안의 살아 있는 악어를 꺼내 요리한답시고 난리법석을 피우며 죽이는 장면은 인간이 동물과의 거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대중에게 확산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들로서 시각적 불편함과 야생동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런데 야생동물을 파괴함으로써 치르는 대가만 두려운 게 아니다. 더 값싸게 더 많이 먹기 위한 인간의 한없는 욕구에 의해 공장식으로 사육되는 동물과의 거리는 인간에게 실질적으로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문제이다. 지금 현재 우리 발등 위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인간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모두 동물과 인간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생태거리가 파괴되면서 비롯되었다.

동물로부터 유래된 질병은 동물의 탓이 아니라 인간이 자초하는 질병이다. ‘동물과의 거리 두기’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되고 실행되기를 바란다.



## 우연히 마주친 동물학대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

반려동물 인구 수의 증가와 함께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유형도 다양하며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사건' 동물자유연대로 하루에도 몇십 통씩 동물학대 제보 전화가 답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현장 출동 그리고 피학대 동물의 구조는, 우연히 마주친 학대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동물을 살리기 위한 시민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상황을 처음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동물학대가 맞는지조차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의 판단기준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학대대응 단계별 방법이 담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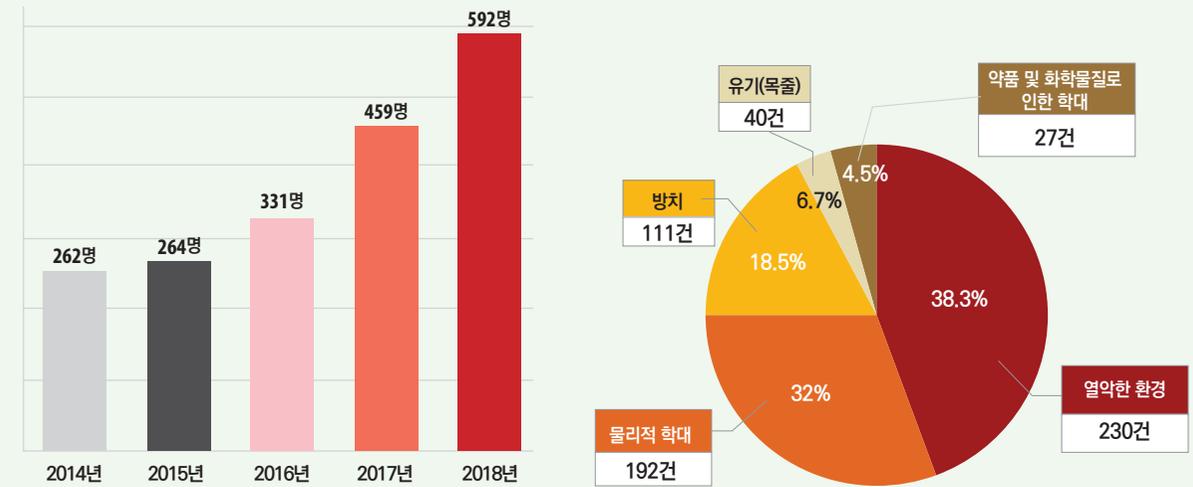


# 위기 동물을 지켜라! 동물학대, 함께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글 서미진 활동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내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반려인구 수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 또한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유형도 다양하며 더욱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전국 262명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8년 기소자는 592명으로, 지난 5년 사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기소 송치된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1]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

[표2] 동물자유연대 2019년 동물학대 제보 현황

동물자유연대로 접수된 2019년 동물학대 제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00건 중 열악한 사육환경에 대한 제보가 230건으로 가장 많은 제보 접수를 차지했습니다. 열악한 사육환경에 대한 제보는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물이 사망하거나 상해 질병에 노출된 사례도 존재했지만, 대체로 환경 자체에 대한 문제 제보가 더욱 많았습니다. 이는 동물학대에 점차 민감해지는 사회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로 대표되는 물리적 학대가 32%로 뒤를 이었고, 방치, 약품 및 화학물질로 인한 학대, 유기 순으로 제보가 이어져 매우 다양한 유형의 동물학대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증가하는 동물학대,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필요

우리 사회 동물학대 사건은 이처럼 높은 빈도와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물학대 대응체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의 특성상 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벌어지기 때문에 경찰과 공무원의 대응만으로 모든 학대 행위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결국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영역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 감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에 의해 사건이 목격되더라도, 시민들은 동물학대라고 확신하지 못하거나 학대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대응이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또한 용기 내어 동물학대 사건을 신고하더라도 일선 대응 주체인 경찰 및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와 부족한 전문지식으로 인해 현장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상황을 감시하는 시민들이 '학대 행위를 구분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학대 사건의 모니터링 ⇨ 사건 신고 및 처리 ⇨ 피학대 동물의 보호에 있어 단계별 증거 확보와 판단기준, 대응방안, 프로세스 등이 담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의 제작과 활용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한 동물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자와 피학대 동물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동물자유연대가 주축이 되어 동물학대 대응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동물학대대응포럼’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동물자유연대 본국에는 동물학대대응포럼 위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뜨거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2019년 6월 출범한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대응포럼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동물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법조계 종사자, 지자체 전담 공무원, 수의사 등 동물학대 대응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참여자 모두 동물학대 사건의 구체적 대응 방법이 담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포럼에 참여해 치열하게 대화하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포럼을 운영하며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했습니다. 포럼 초기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동물학대 대응체계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동물학대 대응체계가 개선해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했는데, 특히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 동물보호법의 미비점을 분석한 결과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학대 \*양형기준’ 도입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물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정리하고, 동물학대 사건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수의학’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보완한 동물학대 대응체계가 담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이 매뉴얼이 위기에 처한 피학대 동물의 신속한 구호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계별 조치, 동물학대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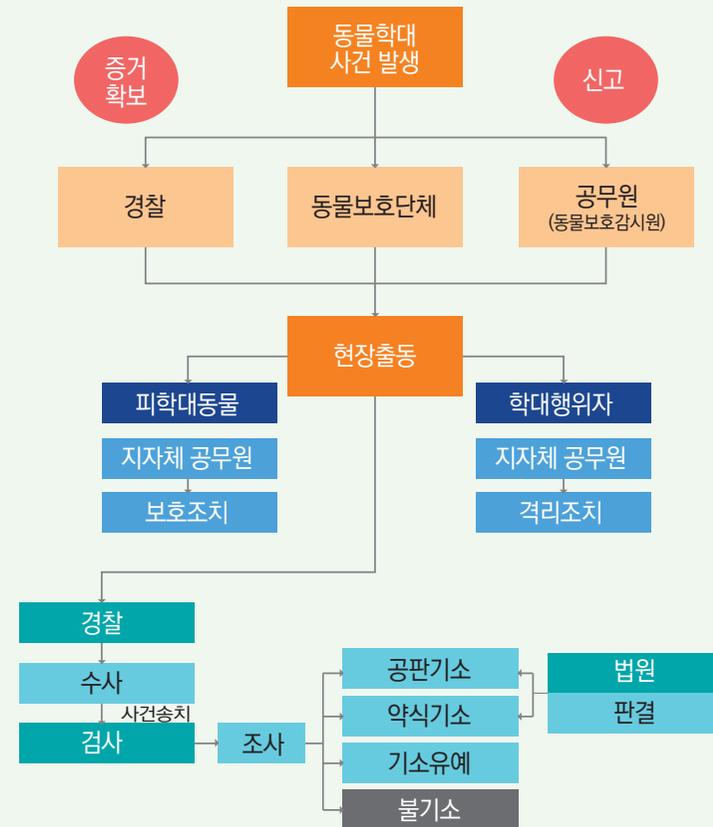
\*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둔 것을 말한다.

### 신속하고 효과적인 동물학대 대응, 무엇보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 역할 중요

동물학대 대응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는 바로 지자체 전담 공무원, 즉 ‘동물보호감시원’입니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은 1) 동물의 적정한 사육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및 중단 3)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동물학대 현장에서 전담 공무원은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명령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 등 사건 대응 과정에 있어 매우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대자가 현장 출입을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특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해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시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학대 현장을 발견한 목격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 또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에게 ‘격리조치의 권한을 가진 전담 공무원이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해주세요. 공무원 역시 한 생명의 생사가 달린 동물학대 사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본인의 역할 및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한 동물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학대 대응의 단계별 방법이 담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은 다가오는 따뜻한 봄,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포럼 그리고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학대피해 동물을 위해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도 동물학대를 함께 예방하고 감시해주세요!



[표3] 동물학대 대응체계

## “동물학대를 명확하게 판단할 법수의학 전문가가 필요해요”

인터뷰·정리 채일택 팀장

그리스 신화 속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린 모습으로 그려진다. 아마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원근 친소(遠近親疎)에 이끌리지 말고 판단하라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동물학대 사건은 다른 의미로 두 눈이 가려진 채 다루어지고 있다.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동물의 특성상 학대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우리 사회는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과 ‘동물학대 유튜브 사건’ 등에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며 더는 동물학대가 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음을 못 박았다. 그러함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동물학대 제보 게시판에는 많은 이들의 제보와 하소연이 올라오고 있으며, 음지에서 벌어지는 학대행위를 막기에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사건에 있어 ‘디케’의 두 눈이 되어줄 법수의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야옹동물병원> 김용현 원장을 만나 동물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수의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 역시 빠르게 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동물 치료 중 학대를 당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시나요?**

동물병원의 특성상 방치 방임과 같은 수동적인 유형의 학대를 더 많이 접해요. 예를 들어 아픈 동물을 치료해 줘야 하는데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치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보호나 관리 혹은 관심이 부족해 발톱이 자라서 발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데도 보호자가 모르는 사례도 있었어요. ‘에리얼’이라는 고양이는 다리가 썩어가고 있었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보호자가 치료하지 않아 소유권을 포기받고 현재 우리 병원에서 보호 중이에요. 또 간혹 적극적인 유형의 학대가 발견되기도 해요. 길에 있는 고양이를 발로 차 횡격막 탈장과 함께 장기가 가슴으로 올라간 케이스도 있었고, 한 여성분이 다 죽어가는 고양이를 데려왔는데 남편이 실수로 밟은 거였던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동물학대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반인들은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방임학대의 경우 관리상태 등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폭행과 같은 학대의 경우 사고에 의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요. 하지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동물의 경우 주인을 무서워하고 분리되었을 때 안정을 찾거나 발생 시기가 다른 상처가 다수 발견되면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어요. 이 밖에도 골절과 탈장처럼 동시에 발생하기 어려운 상해가 함께 발생했을 때도 학대를 의심해봐야 해요.

**우리 사회에 법수의학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법수의학은 ‘법의학의 동물버전’이라 할 수 있어요. 수의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수의학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사후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할 수 없는 동물의 특성상 동물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구조,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학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수의학 교실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수의학 개념의 연구를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법수 의학을 전공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쌓은 뒤, 학교 등에 연구소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 ‘안성 개 전기톱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출석해 저 나름의 의견을 드렸는데 법수의학 관련 학위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 법수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발언했다면 이렇게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 사회의 법수의학 정착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또 동물학대와 관련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과거에는 법수의학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법수의학이 정착돼야 해요. 의심스러운 동물학대 사례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수의과학검역원, 국과수에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고, 요구하고, 사회적 수요가 형성되면 그에 대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과제가 남아 있어요. 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학대 동물이 학대상황에서 벗어나 치료를 받고 보다 안락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대동물 인수를 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해요.

# ‘징역 10년 vs 무혐의’ 동물학대 처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글 박선화, 김슬 활동가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매일 아침, 지난밤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대 제보 게시판의 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018년 동물자유연대로 접수된 동물학대 사건 제보는 무려 1만여 건이었으며, 2019년 또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동물학대 사건이 제보 접수되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주요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이제 ‘오래 그럴 수도 있는 일’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로 바뀐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과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이례적으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동물학대 범죄의 잔혹성은 더해가고 있고, 처벌은 가볍기만 하며 학대자가 동물을 다시 키워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동물학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의 시각과 동물학대 예방과 대응법은 어떤지 궁금해했습니다.

## 서구권 국가들, 처벌 형량도 높고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판결 많아

대체적으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동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기도 하고 동물학대 범죄 형량이 높은 편이며 실제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2015년 미국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트럭에 매단 채 1.5km나 운전해 강아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0년 6개월이라는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한국에서도 이 사건과 비슷한 일명 ‘악마의 에쿠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에 매달려 끌려가던 개는 결국 사망했지만,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남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로 유사한 사건이고 심지어 개가 죽음에 이르렀지만 미국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중형, 한국의 경우는 무혐의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동물학대 범죄 처벌과 관련 법 개정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물학대를 연방 차원의 중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영국에서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최고 형량을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동물학대 범죄를 아동학대 범죄만큼이나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보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동물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소유권을 제한하기도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자가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 혹은 박탈하기도 합니다. 동물을 소유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면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예를 들면, 새끼 고양이를 벽에 던져 눈과 다리, 치아에 손상을 입힌 남성에게 법원은 3개월 징역형과 함께 10년 동안 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동물 소유권을 법원 판결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형과는 별개이며 유죄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피학대 동물을 비롯한 그 외 소유자의 모든 동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 화성 고양이 연쇄살해범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물을 여러 마리 죽이고 학대해도 다시 학대자가 동물을 키우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이 학대자는 최근 또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너무 다른 동물학대 처벌, 그 차이는 어디에서?

호주에서는 반려견을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산책시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으며,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산책시키지 않는 이웃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 정정 조치를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반려견을 방치해 총 4마리를 굶겨 죽인 학대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다르지만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국가별 대응은 이처럼 상이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차이는 바로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동물권, 동물복지 관련 선진적인 법과 제도를 갖춘 국가의 경우,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간주하고 이를 현행법에도 명시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헌법에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 헌법적 차원에서 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스에서도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간과 동등한 생명으로 대우하며 이러한 관점이 법과 정책에 깃들여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동물학대 범죄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경찰관이 있을 정도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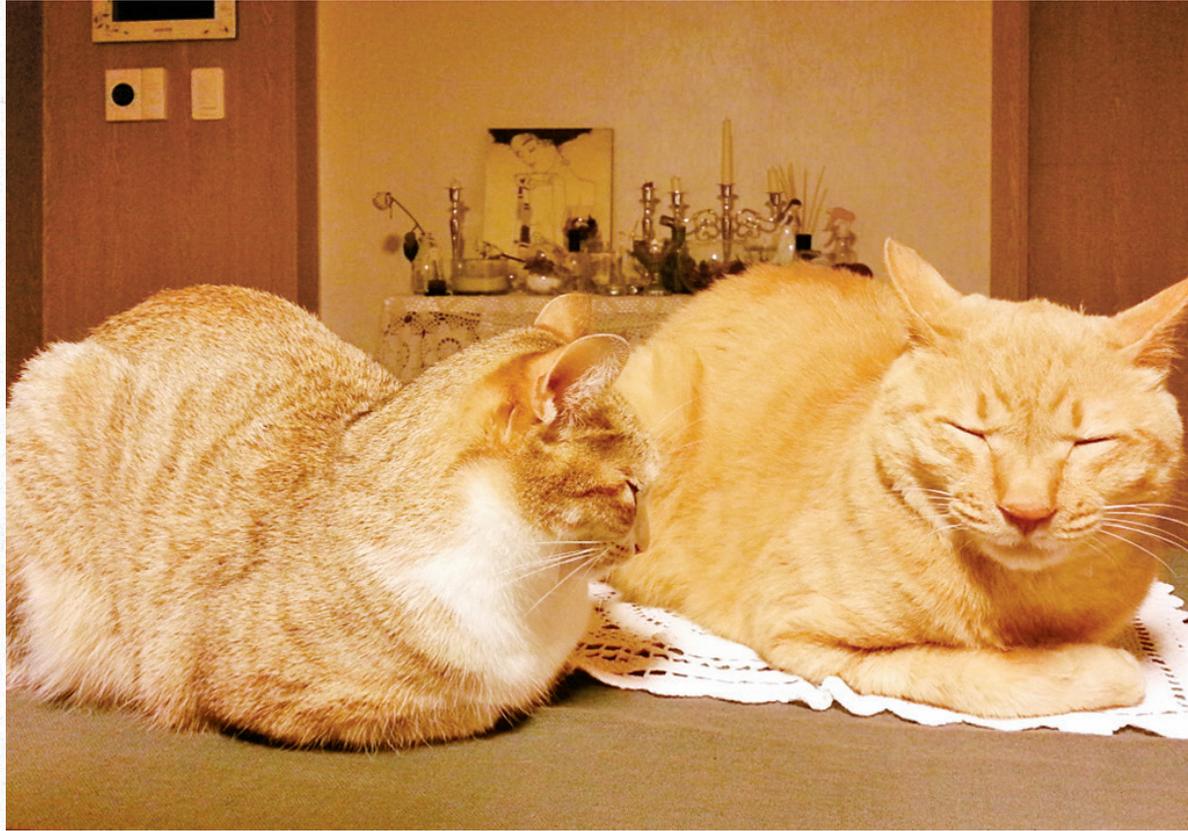
한국 사회는 과거 동물학대를 대수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동물이 맞고 죽음을 당해도 ‘사람이 아닌 동물이니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나치기 쉬웠고,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물과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동물학대 범죄를,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이자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인식하며, 주인이 있는 동물이든 유기동물이든 길고양이든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 지자체, 동물보호단체로 지체하지 않고 제보합니다. 동물학대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학대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함께 분노하고 법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동물학대를 발견하는 눈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는 이제 동물학대에 대응하는 지자체, 수사기관, 재판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을 넘긴 국민청원이 여러 건에 달하고, 동물학대 범죄에 실형이 구형되었으며, 2019년에는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동물이 생명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 덕분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대받은 동물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 제도, 인식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동물을 위한 넬라 판타지아

뮤지션·뮤지컬 배우 배다해

인터뷰·정리 송지성 활동가



동물자유연대의 오랜 후원자이자 동물을 위한 활동이라면 언제든 든든한 수호천사가 되어주시는 배다해 님. 배다해 님은 지난해 8월 ‘생명평화말복 문화제’에서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을 불러 광화문 일대를 지나가는 많은 시민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는데요, 배다해 님의 각별한 동물사랑, 그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배다해 님께서 2010년 KBS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늘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해왔는데요, 동물자유연대를 후원하고 지지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2003년부터 동물 보호 운동을 시작했고 처음 가입한 곳이 금선란 대표님이 이끄시는 대구의 ‘한국 동물보호협회’ 라는 곳이었어요. 이후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동물 복지를 위해 고민해보고 싶어 단체들을 찾다가 마음에 들어온 곳이 바로 이곳 동물자유연대였습니다. ^^

동물 보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동안 동물 보호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동물 보호 활동은 MBC 다큐멘터리 <개고기, 이라고도 우리나라 전통문화인가>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된 후 시작하게 됐어요. 남다른 활동 없이 저도 다른 회원님들처럼 똑같이 탄원서 쓰고, 민원 넣고, 신고하고, 구조하고, 임시 보호해서 입양 보내고... 이렇게 평범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느끼는 점은 동물 복지가 나아지는 일은 항상 더디고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또 지지 않는 사람들과 연대해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동물 보호를 위해 어떤 실천계획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안타깝지만,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동물 복지를 위해 관심을 갖고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해요.

2020년엔 감동이 깃든 배다해 님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을까요?

올해는 많은 분에게 제 목소리를 자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제가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해요. 또 뮤지컬로도 인사드릴 수 있게 뮤지컬 무대도 계획하고 있고요. 삶은 늘 고단하지만 너무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웃음)



# 동물학대 사건을 마주하며 -4개월 차 풋내기 활동가의 학대대응 이야기

글 김민경 활동가



동물자유연대의 활동가가 된 후 처음으로 마주한 학대 사건은 어린 고양이가 삽으로 학대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한 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길고양이가 뒷발을 망친다는 이유로 그물망에 묶인 채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를 즉각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 치료비 모금, 입양 홍보 등 어린 고양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구조 직후 안구 돌출, 광대뼈 골절 등 여러 상해로 인해 생명이 위협했으나 무사히 회복했고 현재는 따뜻한 가족을 만나 '홍시'라는 이름을 얻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대 사건을 마주하다 보면 홍시처럼 위기 속에서 구조되어

새 삶을 찾은 동물들에게 위로와 힘, 활동가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얻곤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좌절과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날이 더욱 많습니다. 학대 사건을 마주할 때 느끼는 충격은 제법 오래도록 활동가들을 괴롭힙니다. 잔혹한 학대현장을 보다 보면 그 잔인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때도 많고, 높은 법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학대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울 때면 '내가 고통받는 동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라는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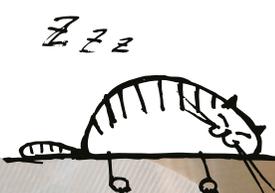
저는 고작 4개월 남짓 된 풋내기 활동가입니다. 그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라는 포부만을 가지고 시작한 동물권 활동가로서의 삶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학대사건에 대응하며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얘기하자면 작년 10월, 한 유튜브버가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본인의 반려묘를 학대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한 마리에게는 물리적 학대를, 한 마리에게는 성적 학대를 가한 그 학대자는 심지어 학대 중에도 입에 담기조차 경악스러운 말들을 내뱉으며 깔깔거렸습니다. 그 사건은 즉각 고발 조치됐고 피학대 동물은 격리되었으나 그 영상에 대한 충격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아 힘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학대범의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마주한 충격과 함께 학대자에게 강력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에 대한 허무함, 동물학대 행위에 진심 어린 반성이 없는 학대자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저는 매우 괴로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글이 올라오는 학대 제보 게시판판을 보고 있으면 고통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실감하곤 합니다. 개 도살 의심, 길고양이 상해, 열악한 사육환경과 방치 등 학대유형은 다양하고 그 방식 또한 점점 더 잔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정의되며, 행위로 인해 직접적 상해가 발생해야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물이 열악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거나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상해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지 않으면 학대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여전히 나약하기만 하고 그 처벌 또한 미미한 현실 속에서 생명으로서의 기본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동물들 모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동물에 대해 여전히 미비한 사회적 인식과 나날이 잔혹해지는 학대방식, 평생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종종 좌절감에 빠져 벗어나기 힘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되어 새 삶을 얻은 동물들 한 마리, 한 마리의 삶이 모여 분명 언젠가는 세상도 변화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물권을 위해 애쓰는 많은 활동가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시는 후원자분들, 동물보호에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들 모두 학대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현실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직은 열정 가득한 풋내기 활동가이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회의감과 무력감 때문에 활동가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든 동물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는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와 학대대응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노력은 동물이 생명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그 사실을 미래의 저도, 이 글을 읽고 계실 많은 분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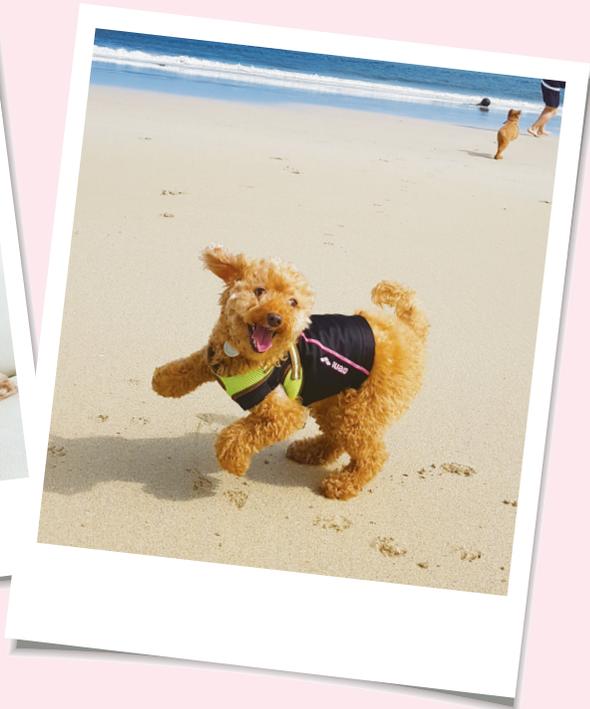


# '미지'가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글 강정미 활동가

동물자유연대의 위기동물 지원사업 '쓰담쓰담'은 주변의 위기동물 및 유기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동물자유연대는 쓰담쓰담 사업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한 것은 물론 입양하신 분께 후원사의 물품을 '입양키트'라는 상자에 넣어 선물로 드렸습니다. '입양키트'는 동물자유연대의 지원 없이 스스로 유기동물을 입양하신 반려인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접수된 유기동물 입양 사연 중 특히 감동적인 '미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미지는 2017년 동물자유연대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구조 당시 미지는 전신에 담뱃불로 의심되는 화상과 구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잔인한 학대로 발생한 심각한 상처를 갖고 있었던 미지. 매를 맞고 담뱃불 등으로 극심한 학대를 당하던 미지의 상태는 가족이 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머리, 귀, 꼬리, 등, 다리까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미지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따라서 치료도 더디고 길어졌습니다. 화상 부위가 넓고 심각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 후 미지는 등에 커다란 흉터를 가진 채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 들어와 입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미지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지울 수 없는 커다란 흉터를 남겼습니다. 화상 치료가 완료되었지만, 가려움과 건조함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끔찍했던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되던 미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미지를 입양하신 '미지 엄마'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

미지 엄마 인사드려요.

2017년 처음 동물자유연대 SNS에서 미지를 만났고 우리 딸과 같은 상처가 있다는 것이 미지를 자꾸 생각나게 했어요.

딸 손에 다리미에 덴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지가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선뜻 미지의 새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비슷한 슬픔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지가 처음 집에 온 날이 생각나네요.

등에 있는 미지의 상처를 제가 손가락으로 마사지해주던 날요.

그때 저는 미지에게 "이 상처가 지워질 수는 없겠지만 점점 기억이 흐려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어요.

미지는 차에 타는 걸 정말 힘들어했어요.

차에만 타면 얼음처럼 몸이 굳어버리고 안아주려고 해도 불안해하며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식구들이 손에 물건을 들면 놀라서 도망가기도 했고,

집 밖으로 산책을 나가려고 해도 다시 집으로 달려가버리는 소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미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처음보다 살도 찼답니다.

그렇게 평안히 지내다 작년 2월, 열흘 동안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동안 미지와 또 다른 강아지 온달이는 할머니가 맡아주었는데, 사료를 거부해 살이 쪼그라들었어요.

식탐이 많아 막무가내로 먹으려고 들던 미지가 무슨 마음으로 음식을 거부했는지...

그 마음을 생각하면 미지에게 지금도 너무나 미안해요.

할머니를 몇 번 만나봤으니 관심을 줄 알았는데, 버림받았다고 느꼈을까요?

이제 미지, 온달이와 함께 하는 여행만 해야 할까 봐요.

지난여름엔 미지 그리고 온달이와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온달이 오빠를 따라 카약에서 바다에 뛰어든 미지가 제게로 수영해서 오는 모습에 우리 가족 모두 감동했답니다.

미지와 우리 가족은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미지는 온달이 오빠랑 차도 잘 타고, 산책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옆집 강아지 따라 짖기도 잘하고, 대문 벨 소리에 뛰쳐나가 야단법석 아빠도 맞이하구요,

엄마가 주는 고구마도 아주 잘 먹어요!

다른 것 없이 미지가 꼭 이렇게만, 지금처럼만 우리 곁에 함께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평화 속에 있습니다.

평범하게 평화롭게!







가축을 예방적 차원에서 아무리 살처분해도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있으니 더는 살처분의 의미가 없어져 결국 병에 걸린 가축만 처분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얼마 후 우리 농장 바로 옆 축산농가들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병에 걸린 가축들을 실은 수십 대의 트럭이 우리 축사 곁을 지나갔으니 구제역 바이러스가 우리 농장에 가득 떠 있었을 것은 틀림없었다. 살처분 법을 피했어도 우리 소들이 모두 구제역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 소들은 끝까지 멀쩡했다. 그 일이 알려져서 그 후 남편은 구제역 사태 관련한 토론회에 여기저기 불려 다녔다.

우리 소가 사는 우리는 공장식 축산의 헤아림으로 치면 족히 100마리는 충분히 기를 수 있는 면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20여 마리의 소만 기른다. 우사는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남향으로 길게 지었다. 우사 전체를 터놓아서 바람도 잘 통한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채광, 환기, 충분한 공간은 가축에게도 중요하다. 좋은 환경 속에서 가축은 병에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쉽게 낫는다.

축산농가에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가축을 기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소가 되었건, 돼지가 되었건, 닭이 되었건 단위 면적당 많은 마릿수를 넣어야 이익이 커진다. 좁은 데다가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기르니 가축은 병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항생제를 다량 투여할 수밖에 없다. 소와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가의 책임이 1차적으로 가장 크다. 그러나 소비자의 책임도 있다. 싼 값으로 고기와 우유, 달걀을 먹으려하니 생산자 쪽에서는 생산비가 적게 드는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생산비가 높아져서 고기나 달걀 값이 높아져도 그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소비자가 마음먹을 때 가축 사육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비싼 만큼 고기를 좀 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육식을 최대한 줄이고, 먹더라도 생태와 환경 그리고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를 먹으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는 '생명역동농업'을 하고 있어서 농사를 중히 여기는 대안학교인 '자유발도르프학교'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 자유발도르프학교의 교과 과정 중에는 반드시 농사 실습을 해야 하는 학년이 있다. 이 아이들이 농사 실습을 오면 남편은 풀도 뽑고 수확도 하게 하지만 벗짚이나 풀을 소에게 갖다 주게도 한다. 소집의 문을 열어주어 아이들이 소 옆에 가까이 가보게도 한다. 일반농가에서는 어렵도 없는 일이다. 방역 당국은 소독하지 않은 외부인을 축사에 들이는 것을 금한다. 그러다 가축이 병에 걸리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가축과 접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축사 문을 열고 아이들을 들어가 보게 한다. 쭈뼛거리는 애들도 있지만, 곧 대부분의 아이들은 동물들 가까이 다가가서는 잘 논다.

어느 날 9학년(중3) 아이들이 소집 안에 들어가 풀을 주고 소들을 따라다니며 한참을 놀다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이 소가 우리가 먹는 소고기예요?" 아이들은 자기 눈앞에서 큰 눈을 깜벅거리거나 뛰노는 생명체인 소가 마트에서 사 오는 소고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둘이 같다는 것을 아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와 유산양 그리고 개들하고 논 것만큼이나 그 깨달음은 아이들에게 귀한 경험이 되었으리라 나는 믿는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 살아 있는 생명을 인간이 먹을 수밖에 없을 때 인간이 가져야 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여러 생각 등을 일부러 말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것을 우리 부부는 생활 방편으로 삼고 있다. 우리 농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농장에 식물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고 자연과 생태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고마운 일이 아닌가.



# | 우리가 마땅히 읽고 보고 들어야 할 동물 관련 문화 이야기

##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그들의 이야기

음악 <개와 고양이에 관한 진실> 뷰티풀 데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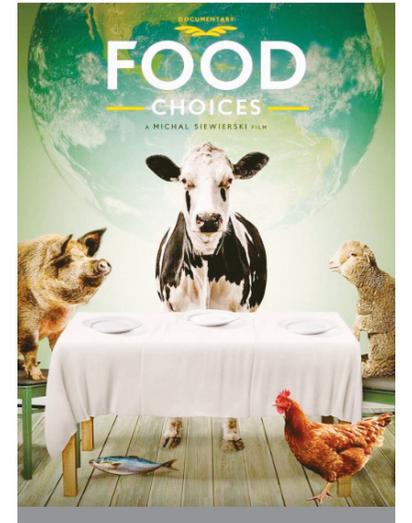


개와 고양이 관련한 양방향 노래를 예상했다면, <개와 고양이에 관한 진실>은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왜? 무거운 베이스라인과 찌르는 듯한 기타 리프 위에 '자꾸 애원하면 할수록 멀어지겠지, 내가 싫겠지'라고 개와 고양이의 입장에서 인간들에게 한 하소연이 엮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음악의 노랫말, 처음부터 끝까지 직설적이다. 한데 어쩐지 계속 듣게 된다. 듣다 보면 짧은 목줄에 묶인 채 평생을 그 줄이 허용하는 넓이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개와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거리의 고양이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또 모두가 출근한 빈집에서 종일 외로이 있을 반려동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음악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고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개와 고양이의 솔직한 이야기이며, SNS를 통해 손쉽게 마주하는 행복한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 그 이면의 이야기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종일 외로웠다면 다가오는 우리 집 고양이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한 날이나, 날씨가 짓궂어 '하루쯤 거리의 아이들도 식사를 걸러도 되겠지?' 생각했던 또 다른 어느 날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음악. 또한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음악. 신영배

##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는 의지

다큐멘터리 <착한 식단을 찾아서(Food Choice)> 미하우 시에비에르스키

최근 식욕과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체력을 보충하겠다며 육류 위주의 보양식이니 한약이니 기웃거리며 꾸역꾸역 삼켜 넣기 바빴다. 그럼에도 큰 효과 없이 속이 더부룩하기 일쑤였는데, 많은 문제는 '더할 때'보다 '뺄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리라. 몸이 안 좋다고 보양식과 건강식을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줄이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 여기 '건강의 핵심은 절제'라는 것을 명쾌히 설명해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미하우 시에비에르스키 감독의 <착한 식단을 찾아서>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를 통해 무분별한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우리 삶과 건강, 나아가 환경에까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의 식단이 과장 광고와 잘못된 상식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성찰해볼 수 있다. 다 보고 나면 잠시나마라도 '건강하게 먹고 싶다'라는 의욕이 샘솟게 해주는 고마운 다큐멘터리다. 사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건강하게 또 적당히' 먹는 것이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새삼 되짚어주며 그것에 도전할 '의지'를 주는 무언가일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부디 그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오수정



## 쉽게 돌려주지 못할 자유라면 애초에 빼앗지 말았어야지

책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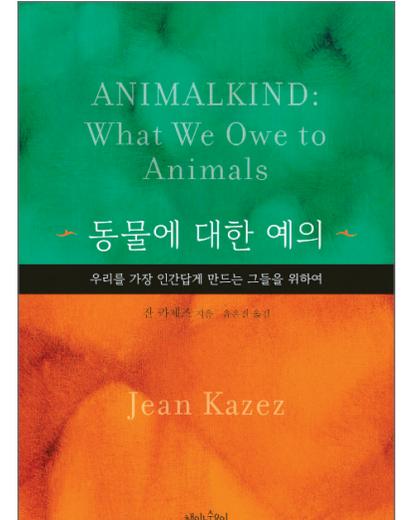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는 불법 포획되어 돌고래쇼에 동원된 제주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포획 4년 만인 2013년에 바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책이다. 몇 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니 '이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2020년을 기대했겠지'라는 생각에 씁쓸해진다. 2013년에 제주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마리의 불법포획 돌고래가 자유를 되찾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지금도 많은 돌고래가 비좁은 수족관에서 고통받고 있고, 몇 달 전에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돌고래가 폐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일본 다이저에서는 여전히 돌고래가 잔혹하게 사냥당하고 있다.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 농장동물, 반려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으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취급을 받는 동물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돌고래라는 종 분류를 떠나서 인간에 의해 규정된 동물들의 삶 자체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느껴진다. 박주호

## 21세기 동물윤리학의 신(新) 고전

책 <동물에 대한 예의> 잔 카제즈

오늘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모순에 빠지곤 한다. 휴일 아침 자신이 키우는 개와 함께 산책을 즐기거나 TV 토론 프로그램을 보며 실험실의 침팬지에게도 초원의 기린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열을 올리지만, 식사 시간이면 그들은 돼지와 닭을 맛있게 먹는다. 책 <동물에 대한 예의>는 이처럼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짚어보며 행복한 공존을 위한 철학적 통찰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생명 철학계의 세계적 석학 잔 카제즈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욕망으로 수많은 동물이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즉 광우병과 구제역, 조류독감 등 동물들의 역습이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한다. 월간 <Ohboy!>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를 위한 토론회**

작년 12월 18일 유기동물의 고통사를 방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자유연대가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 중인 전국 2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연사 및 관리 현황 결과를 발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토론회를 통해 지자체 보호소의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동물 고통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보호소에 머무는 동물들의 고통이 경감되고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살처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작년 12월 17일 동물자유연대는 국회 동물복지포럼과 함께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바라본 살처분과 인도적 살처분에 관한 발제에 이어 종합 토론회에서는 살처분 정책을 법적, 환경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외 살처분 정책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우리 사회의 동물 살처분이 불필요한 고통과 살생을 야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2019 일산 <케이펫페어(K-pet)> 참가**

반려인들의 축제 <케이펫페어>. 2019년에도 어김없이 동물자유연대가 참가했습니다.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캠페인 진행을 통해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동물자유연대의 NEW 굿즈인 손수건과 그림책도 야심차게 선보였는데요, 매년 부스에 들려주시고 캠페인과 후원에 관심 가지며 함께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타벅스 케이지프리 선언**

국내 최대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케이지프리를 선언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향후 10년 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달걀을 비좁은 철장에 갇혀 사육되는 암탉이 낳은 달걀이 아닌, 동물복지 사육 환경 속의 암탉이 낳은 달걀로 전환하게 됩니다. 스타벅스의 케이지프리 선언이 이행될 경우 매년 약 4만 7,000여 마리의 암탉들이 비좁은 철장을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커피 업계 1위 기업의 케이지프리 선언이 동종 업계 다른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동물학대 대응**

아동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 제보가 잇따르며 그 행태의 잔인함도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인데요, 동물자유연대는 증가하는 아동 청소년의 동물학대 범죄에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작년 12월 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상 동물보호 교육의 의무화’, ‘학교폭력예방법 내 동물학대 행위 원칙 및 처리 기준 수립’ 등 동물학대 행위 청소년에 대한 관리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육곰 문제 관련 환경부 국정감사 출석**

작년 10월 18일 동물자유연대는 강효상 의원의 요청으로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학대에 가까운 사육곰의 복지실태를 알리고 환경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는데요, 동물자유연대의 요청대로 농가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환경부가 사육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인지하고, 사육곰을 상업적 가치가 아닌 생명 그 자체로 바라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OWA(Open Wing Alliance) 아시아 서밋**

동물자유연대는 케이지프리 활동을 펼치는 전 세계 70여 개 단체의 연대체인 OWA의 아시아 서밋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17여 개 아시아 국가 단체들과 함께 케이지프리 운동에 있어 아시아 지역만이 가지는 지역적, 문화적 특성과 어려움을 나누고, 앞으로 연대해나갈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아시아 서밋은 아시아 전역 14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딤섬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을 대상으로 케이지프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함께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0년에도 우리 사회의 케이지프리 운동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인천 개 전기도살사건 유죄 판결**

인천의 한 개 농장에서 2011년부터 약 5년간 연간 30두에 달하는 개를 전기 쇠고챙이로 도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심 인천지방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지요. 1년 넘게 10번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거쳐 작년 12월 19일 드디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잔인한 개 도살에 대한 우리 사회 잘못된 인식과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는 시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상소로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동물자유연대는 피고가 법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상황을 확인하고 강력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 동물 친구들의 기억을 담고 있는 별나무

글·사진 조은희 선임 활동가

별이 된 동물 친구들의 유골과 함께 심은 '별나무' 반려동물복지센터 온의 마당 한쪽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봄, 여름, 가을을 잘 보내고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하늘로 훌쩍 떠나버린 동물 친구가 그리울 때면 별나무를 찾아가 인사를 건네보기도 했는데요, 올겨울 잎사귀 외투도 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별나무가 춥고 외롭지 않도록 별이 된 동물 친구를 기억하는 분들의 그리움과 추억을 담은 편지로 따뜻함을 전해봅니다. 별나무야, 후원자 분들의 따뜻한 편지로 이번 겨울을 잘 견뎌내고 올봄에 또 '별꽃'을 예쁘게 피워줘!



# 일리(1,2) 있는 달걀

시민 여러분의 일리(1,2)있는 달걀 선택이  
공장식 축산으로 고통받는 암탉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